

37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Chapter

사 53장, 요 19장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7장 (십자가의 길)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안다.
2.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마음 열기



1.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낮아졌거나 겸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2.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가장 낮아졌던 모습이나 겸손했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본받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참 아들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꾀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국가 대표가 한 나라를 대표하여 경기에 출전했다가 패했을 때에 그 패배의 영향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둘째 아담, 두 번째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써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이자 동시에 최고의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2)

Not wit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wit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He 9:1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시 22:1~21)

(사 53:4~12)

(히 10:10~1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거의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2.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혹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심이 가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와 함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속죄뿐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분적으로 새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활에서도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십자가 아래서



나의 모든 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끼를 위해 죽은 암탉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그 닭장 등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가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 저 암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자랑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7)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